

호텔종사자의 전공학습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정영미
경주대학교 외식경영학부

The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Hotel Employees on Job Performanc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ung Young Mi

Dept. of Food Service Management & Curinery Art, Korea Gyeong 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사 전 전공관련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종사원의 직무성과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국내 L호텔을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300부를 배포하여 26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호텔종사자의 경우 호텔관련 전공학습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은 전공학습과 직무성과간 매개역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실무형 전공학습은 호텔업계를 비롯한 타 업계의 취업 시 종사원의 업무 적응도를 높이고 나아가 종사원들의 자기효능감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국내 특급호텔 및 중저가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의 확대가 이뤄지고 인턴연계수업이 진행되는 호텔 종사원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취업 후 직무성과간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주제어 : 전공학습, 직무성과, 자기효능감, 호텔종사자,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ed on hotel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 efficacy and job performance of employees was analyzed. We distributed 300 questionnaires to domestic L hotel employees. A total of 250 questionnaires were retrieved and 233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for 17 unfair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hotel worker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elf - efficacy. Self - efficacy played a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s' learning and job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 develop an industry-university linkage program. Practical majors will increase the workplace adaptability of employees. And the self - efficacy of the employees will be increased to affect the job performance. In the future, I hope that research on the self-efficacy of hotel employees and post-employment job performance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Key Words : Concentration,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Hotel employees, Mediating effects

Received 3 February 2017, Revised 2 March 2017

Accepted 20 March 2017, Published 28 March 2017

Corresponding Author: Jung young Mi(Dep. Food Service Management & Culinary art, Korea Gyeong ju University)

Email: kam2882@g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2년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공일치, 불일치와 임금간의 관계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졸 취업자중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비전공자 취업보다 10-2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전공 관련 직무에 취업 시 해당 직장에서 전공 일치도와 관련하여 임금으로 책정해 주는 경우와 직무 습득 처리 과정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업무처리 능력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기간 졸업자 취업률이 59.3%로 저조한 현재(2013 교육통계 취업자료) 취업난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2]. 전공과 관련 없이 단순히 취업만을 목표로 직장을 갖는 사례가 증가하고[3], 직무불일치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친다[4,5]. 전공 관련 학습은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관련 전문지식을 미리 학습함으로써 직무수행 과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자신감과 동기부여 수준을 높여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직무수행 시 개인이 느끼는 자신감은 자기효능감으로 학습과 성과 간에 중요한 변인이다[6].

인적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호텔의 경우 인적자원의 관리 및 교육은 중요한 과제이다.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의 직무관련 전공학습일치는 직무성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져 호텔관련 매출 및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6 교육부현황 전국 대학 호텔관련 개설 학과 306개, 조리과 180개로 조리사, 객실관리, 바텐더, 호텔시설관리를 포함한 호텔관련 서비스업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학과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7]. 호텔직무 특성상 고객과 접촉이 많은 직원은 단정한 외모와 외국어는 필수 요건이며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역시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 예비 호텔 종사자를 배출하는 학과의 경우 호텔직무를 파악하여 관련과 학생들이 취업 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공 학습을 통한 개인의 자신감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직무성과 및 만족에 영향 미치며[8], 직무만족은 직무성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개인이 학습을 통해 자

신의 직무에 만족하면 조직에 기여를 예상 할 수 있다고 하였다[9].

전공학습은 직무성과 항상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0], 직무 관련 전공일치는 직무몰입,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1]. 호텔기업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 호텔관련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실무교육은 취업 후 직무 수행 시 개인의 자신감과 기업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그의 전공과 직무의 일치정도를 살펴보고 전공직무일치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나아가 호텔 전공 관련 학과와 호텔기업간의 교육연계성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호텔리어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공과 직무의 일치 중요성을 알려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 및 취업을 이워지길 기대해 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전공학습

전공 학습일치는 학자들 마다 직업일치, 전공일치, 업무일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개인이 입사 전 학습한 전공과 현 직장 업무가 일치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전공 직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 불일치, 숙련 불일치, 전공 불일치의 세 가지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으며[12], 직무불일치는 교육 불일치, 숙련 불일치, 전공 불일치를 포괄하며 개인의 능력과 직무 간의 차이인 직무 불일치는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13].

한국과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67% 학생들이 전공과 희망직업이 매우 일치하거나 일치한다고 응답하였고[14], 직무와 전공이 일치하는 사람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전공학습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시 개인의 자신감은 직무성과를 높여지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자기효능감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며 개인적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1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업무에 몰입하고 헌신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의지가 높으며 교육 훈련 산업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높이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17].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특정과업의 수행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수행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18].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고[19] 자기효능감은 교육 참여와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선행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 시 필요한 학습을 통해 수준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2.3 직무성과

성과란 일의 결과로 실적이라고 얘기 할 수 있다. 직무 성과는 기업경영 측면에서 조직이 목표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목표달성으로 조직의 역할수행을 통한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이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이며[21]. 직무성과란 조직구성원이 모든 직무와 관련된 수행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것[22], 또한 개인이 할당받은 과업에 대한 중업원의 성취도로 정의되기도 한다[23].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훈련이 직무몰입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24] 자기주도형학습능력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심리태도이며 이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결과 직무성과는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종업원의 와인에 대한 지식은 고객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25], 직무와 전공이 일치하는

사람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15], 학습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습을 유지시키고 성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믿음과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26, 27].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전공학습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국내 호텔종사원 대상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직무성과가 높아진다고 하였다[28].

즉 비슷한 기술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 상이한 환경에 처한 동일한 사람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따라 과업수행을 잘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심리 상태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직무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2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중 교육체계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가 강하다[3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2: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학습과 직무성과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교육 훈련자의 교육 후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 하였으며[31] 외식업체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직무성과의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그리고 호텔직원의 커뮤니케이션만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자기효능감은 전공학습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전공학습

본 연구에서 전공학습을 전공과 관련된 학습으로 호텔종사원과 관련된 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조리 학과를 포함한 호텔을 구성하고 있는 식음료, 객실, 시설팀 등과 연계된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직업학교의 학습을 이수한 경험으로 현 직무와 전공학습간의 일치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강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15] 수정 보완하여 (1)나의 전공은 나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2)나의 직무는 새로운 학습과 기술을 계속 배워야 한다. (3)나의 전공학습은 현 직무를 수행하기 충분하다. (4)나의 전공은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 등의 4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16] 개인의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과 수행과정의 자신감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혜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34] 수정 보완하여 (1)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경우에도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2)나는 다른 동료들보다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3)나는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직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다. (4)나는 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5)나는 대체적으로 내가 중요시 하는 것을 얻을 능력이 있다. (6)나는 새로운 업무(신메뉴얼, 새로운 메뉴, 최신프로그램)에 적응이 빠르다. (7)나의 경험과 성과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등의 7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직무성과

본 연구에서는 직무성과를 개인의 직무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정주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8] 수정 보완하여 (1)나는 업무수행이 주도적 이었다고 생각한다. (2)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한다. (3)나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4)나는 내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5)나는 업무 수행성장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6)나의 전공학습은 업무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등의 6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L호텔과 서울L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2016년 06월 1일부터 06월 26일까지 실시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은 편의 추출법에 의거 300부를 배포하여 26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들을 수정하여 최종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2를 이용한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와 같이 성별은 남성이 175명(70%), 여성이 75명(29.9%)으로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 58명(23.2%), 30대 47명(18.8%), 40대 98명(39.2%), 50대 46명(18.4%), 60대 이상이 1명(0.4%)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 24명(9.6%), 2년제 졸업이 129명(51.6%), 4년제 졸업이 72명 (28.8%), 직업 전문학교 졸업이 4명(1.6%), 대학원 이상이 21명(8.4%)로 나타났으며, 입사 전 전공학습은 관광관련전공자가 11명(4.4%), 호텔경영전공자가 30명(12%), 외식조리·식품관련전공자가 151명(60.4%), 외국어전공자가 12명(4.8%), 그 외 기타전공이 46명(18.4%)로 나타났다. 소속부서는 조리 194명(77.6%), 객실 24명(9.6%), 관리시설 16명(6.4%), 식음 15명(6%), 영업 1명(0.4), 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Categories		Frequencies	%
Sex	Male	175	70
	Female	75	30
Age	20's	58	23.2
	30's	47	18.8
	40's	98	39.2
	50's	46	18.4
	60's above	1	4
Education	high school	24	9.6
	2y university	129	51.6
	4y university	72	28.8
	Professional school	4	1.6
	graduate school	21	8.4
Major	Tourism Management	11	4.4
	Hotel management	30	12.0
	Food & Beverage, Food language major	151	60.4
	other	12	4.8
	other	46	18.4
Station	Room Team	24	9.6
	Food and beverage team	15	6.0
	Cooking Team	194	77.6
	Facilities Team	16	6.4
	Sales Team	1	4
Total		250	100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분석은 항목간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α 계수가 .6 이상이면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각 개념의 Cronbach's α 계수는 .6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35].

<Table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 Items	β	S.E.	T	CR	AVE	α	
Concentration	con4co	.633			.775	.466	.688
	n3	.524	.134	6.293			
	con2	.549	.131	6.509			
	con1	.701	.180	7.467			
Self-Efficacy	se7	.685			.924	.635	.866
	se6	.673	.098	9.609			
	se5	.687	.093	9.782			
	se4	.630	.095	9.041			
	se3	.733	.104	10.370			
	se2	.718	.104	10.181			
	se1	.724	.091	10.258			
Job Performance	jp6	.638			.922	.666	.855
	jp5	.765	.105	9.910			
	jp4	.700	.101	9.258			
	jp3	.690	.097	9.154			
	jp2	.785	.107	10.099			
	jp1	.675	.104	9.011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측정항목을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 지수에서 측정모델의 자료 적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_{(116)} = 210.539, p=.000, GFI=.908, AGFI=.879, CFI=.939, RMSEA=.060$), 측정문항의 표준추정치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값은 .7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전공학습의 평균추출분산(AVE: averaged variance extracted) 값이 .466로 .5를 초과 하지 않으나 표준화 요인값 .5이상으로 좋은 값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36],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는 AVE 값이 .5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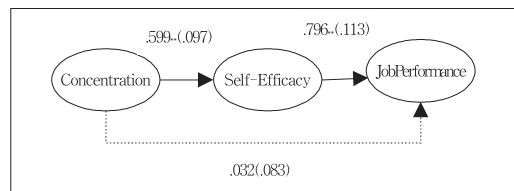
Variables	Concentration	Self Efficacy	Job Performance
Concentration	1		
Self-Efficacy	.481	1	
Job Performance	.421	.706	1

* all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level of $\alpha=0.01$

4.3 가설검증

4.3.1 연구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별로 제시한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전공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 그리고 직무성과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_{(114)} = 184.849, p<.05, GFI=.922, AGFI=.891, CFI=.958, RMSEA=.050$) 권장치를 상회하고 있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1]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 $p<.05, ** p<.01$

4.3.2 가설 검증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전공학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beta=.599$, C.R.=6.130 로 유의수준 $\alpha=.01$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전공학습이 직무성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beta=.796$, C.R.=7.367로 유의수준 $\alpha=.01$ 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beta=.032$, C.R.=0.399 로 유의수준 $\alpha=.01$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ing

Hypothesis	Structure paths	β	S.E	C.R	p	Results
H1	Concentration→Self-Efficacy	.599	.097	6.130	**	Supp
H2	Self-Efficacy→Job performance	.796	.113	7.367	**	Supp
H3	Concentration→Job performance	.032	.083	0.399	.579	Reject

* $p<.05$, ** $p<.01$

한편,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회귀식의 독립변수 회귀 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해당변수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 오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계산하고 통계적으로 유의 선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선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있다.

<Table 5> The result of Sobel Test

Variables Relation	A	SEA	Variables Relation	B	SEA	Sobel test statistic	P-value
Concentration → Self-Efficacy	.599	.097	Self-Efficacy →Job performance	.796	.113	4.644	.00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호텔종사원의 전공학습이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직무성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종사원의 전공학습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호텔종사원의 취업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조직을 활발하게 하고 취업 후 적응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호텔종사원의 배출과 관련된 대학의 경우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공학습 후 취업하는 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호텔종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취적이고 전공학습을 통한 업무관련 지식은 직무성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셋째, 전공학습은 직무성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일치자라 하더라도 전공학습을 통한 경험과 학습이 직접적으로 직무성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전공학습과 직무성구간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효능감이 전공학습과 직무성구 간 매개효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결과 응답자 250명 중 207명이 호텔관련 전공자로 사료되며 호텔관련 전공자들이 관련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유지로 현재 건설중 이거나 오픈 예정인 호텔은 타 전공 졸업생들의 호텔 취업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 전공관련 학습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고 전공자의 취업이 어려우면 취업 후 전공관련 학습을 운영하는 방안과 취업 전 호텔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호텔종사원의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직무성구에 영향을 줄 것이며 호텔 매출과도 연결되는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호텔관리자들은 취업 후 실시되는 부서 간 교육 및 신입사원의 교육 부담금을 사업체와 관련 학과의 연계사업을 통한 비용 전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이는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실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체는 신입교육 기간을 단축 축소시킴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과 맞춤형 인재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호텔관련 전공을 이수한 종사원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원활한 처리능력을 갖게 됨으로 자기효능감은 비전공자에 비해 상승 할 것이며 이는 자신의 만족감으로 형성되어 직무성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전공일치 취업이 늘어날수록 관련 전공자는 그들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하고 비전공자들에 비해 실수가 적어짐으로써 자신의 직무에 확신을 가지고 결국 성과가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호텔 관련 학과는 산학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사원의 업무 적응 기간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지속적인 호텔관련 학과 학생의 전공 관련 업체의 취업이 이뤄지길 바란다.

본연구의 한계점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상의 일반화가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설문대상의 76%가 조리사로 이뤄져 호텔종사원 특성상 다른 파트에 비해 전공 관련 종사원의 비율이 높음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대상 선정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REFERENCES

[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www.caeaedu.or.kr/main.html, 2012.

[2] Education statistics employment data, www.kedi.re.kr, 2013.

[3] Kim gi hyun,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3.

[4] Cha, Sung-Hyun and Chu, Hui-jung, "The Effect of Education and Skill Mismatch on Wage,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19, No.3, pp.177-215, 2010.

[5] Lim, Jung Youn and Lee young Min, "Analyzing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Skill match as well as Job

Characteristics on Voluntarily Turnover Intention of Early Careers in Small and Midium-sized Corporation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place Environment, Workers."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vol.15, No.2, pp.155-181, 2013.

[6] Kim. Myeong-Hui, Lee Young-Hwan, and Jeon Hea-June, "Empirical Study on the Level of Training Transfer and Job Satisfaction in Public Service Agency."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3, No.5, pp.2523-2541, 2010.

[7]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www.moe.go.kr)

[8] Cho, Jung Joo,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 for Life-long Educ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tel Employees." Department of Food service Culinary &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2011.

[9] Klassen, R. M, and Chiu, M. M. "Effects on teacher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Teacher gender, years of experience, and job str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02. No.3, pp.741-756, 2010.

[10] Kim Sung-Hwan, "Influence which Hotel Employee's Self-efficacy and Self-realization has on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Engagement" Dept of Hotel Management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2015.

[11] Seo Hwa Joung and Kim Byoung Joo,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Degree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Participation on Programs for Getting Employment, and Job Match on Job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ed Employee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23, No.4, pp.185-205, 2014.

[12] Jin Hee Kim, "The Career Decision Making Experience Appeared in Career Stories of College Students Whose Majors Mismatch Their Desired Job."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6, No.4, pp.993-1021, 2012.

[13] Hyo-jung Kim and Seon-hwa Kwag, "The Effects of Job Mismatches on Wages and Job Satisfaction." Survey research, Vol.17, No.2, pp. 85-117, 2016.

- [14] Myung-Hee Yoon and You, Hyung-Sook, "Comparative Study of Correspondence for Expected Occupation-ajor and Job Preparation Behavior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ourism Related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 Vol. 27, No., pp.203-216, 2010.
- [15] Moon Kang In, "Duties of the employee engaged in hotel-match major impact on the immersive and organizational potential of the regular phone" Department of Food service & Culinary Management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3.
- [16] Bandura, A. "A Self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2, No.2, pp.191-215, 1997.
- [17] Watkins, K. E and Marsick, V. J, "Sculpting the learning organization: Lessons in the art and science of systemic changem San Freancisco: Jossey-Bass, 1993.
- [18] Park Bong-Gyu,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Attitud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15, No. 1, pp.69-85, 2008.
- [19] Sun-Kyu Lee, Dong-Guk Choi, Doo-yul Kim, Eun-gu Kang, and Sang-min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imensions of Learning Organization to Job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7, pp.113-121, 2014.
- [20] Choi Young-Am, Park Gye-Hong, and Moon Jaeseung, "The Impact of Continuous Learning activities on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Service Quality: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16, No.1, pp.27-58, 2014.
- [21] Lee, SeiHan, "The Effects of Job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of Public Social Worker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eongju Universit. 2013.
- [22] Sin, Eun-Gyeong, Cao, Yu, and Kim, Jin-Gang, "Moderation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Effects of Hotel Employees' Self-Efficacy to Job Performance." *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Vol.11, No.3, pp.83-108, 2015.
- [23] Cascio, K. F. *Managing Human Resources*. McGraw-Hill. 1992.
- [24] Kim, Ki-Young and Ko, Mi-Ae, "Effects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hotel employe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vol.27, No.4, pp.347-359, 2013.
- [25] Kim Min-Hwan, "A study on the effects of wine educational training on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of sommelier,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1.
- [26] Fiol, C. M and Lyles, M. A, "Organizational learn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0, No.4, pp.803-813, 1985.
- [27] Knott, M. J and Kayes, C. " Individual contribution to a team: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adaptive learn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Journal*, Vol.9, No.1, pp.22-23, 2012.
- [28] Yeon Sun Kim and Sung Hyuk Kim,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Teamwork,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of Hotel Staff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Vol.37, No.-, pp.97-108, 2010.
- [29] Park, Kwon-h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Learning Orientation of Small Business CEOs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usiness Satisfaction and Business Quit." *Intention,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Vol.15, No.2, pp.205-222, 2011.
- [30] Kim Min-Hwan, Yoo Young-Jin, Song, and Jung-Sun, "The Effect of Wine Training Program on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Vol.2492, No.-, pp.217-232, 2012.
- [31] Lee Eun-Yong, Hwang Jung-Hyun, and Lee Soo-Bum, "A Study of the Effects of Training Factors on Transfer,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Tourism*, Vol.25, No.6, pp. 275-294, 2011.
- [32] So Lyoung Moon and Chan Bok Woo, "The Effect

- of Self-directed Learning of Foodservice Employees on and Job Performance : Self The Mediating Efficacy of Self-Efficacy.” *Tourism Research*, Vol.39, No.2, pp.237-260, 2014.
- [33] Gae Geun Cho, “Research Articles : The Effect of Hotel Employees’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Job Engage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 *Journal of Food service Management*, Vol.19, No.1, pp. 367-389, 2016.
- [34] Choi Hae-soo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to Empoloyee’s Self-Efficacy in the hotel Company-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 of Contextual Performanc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29, No.4, pp.189-211, 2014.
- [35] Nunnally, J. C., and Bernstein, I. H, *Psychometric Theory(3rd)*, McGraw-Hill Inc. 1994.
- [36] Yu Jong Pil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cept and Understanding.” *Hannarea Publishing co.* Seoul. 2015.
- [37]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and Tatham, R. L. “*Multivariate date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2006.
- [38] Yeob-Myeong Son, Byeong-Soo Jung, “Convergence Development of Video and E-learning System for Education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13-119, 2015.
- [39] Seung-Ju Kang, Eun-Ju Kim, Hae-Jin Shin,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33-41, 2016.
- [40] Kyoung-A Chung, Ji-Hyun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43-155, 2015.
- [41] Eun-Sook Shin, “Job Satisfaction and Relating Factors of Medical Record Technician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37-346, 2015.
- [42] In-Ho Jung, Byung-Chul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 [43] Sui Choi, Kyoungho Choi,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research of the undergraduate orchestra club activities - A convergent aspects of statistical method and opinion mi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25-31, 2015.
- [44] Hyo-Kyung Kim, Jae-Young Moon, “A study on the Work Process of Hotels and Residence Hotels effect on the Employee Satisfac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93-99, 2016.

정 영 미(Jung, Young Mi)



- 2008년 2월 : 영산대학교 호텔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학과(경영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경주대학교 외식조리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호텔, 조리
- E-Mail : kam2882@gu.ac.kr